

## '심리학사 및 이론 체계'

Lecture Notes File: History of Psychology/ (text in Korean)/by Jung-Mo Lee (2012)

# 1-1: Introduction : Why do we study the History of Psychology?

-----  
\* 이 파일은 2007년 2학기에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학부생을 위하여 이정모 교수가 강의한 [심리학사 및 이론체계] 강의의 녹음 내용 녹취록을 풀어서 2012년 3월 이후에 재편집한 내용입니다.

\* 녹취록 푸는 작업은 2008년 성균대학교 심리학과 학부생으로 재학 중이던 심지현 학생이 수고를 하여 주었습니다.

\* 이 파일의 내용은 2007년 강의 파일 내용에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추가되어야 할 자료 내용은 덧붙여 보완한 것입니다.

\* 원래 슬라이드 [1 -> 11] 까지는 강의 제목 등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기에 슬라이드 2-11을 생략했고 따라서 슬라이드 12부터 시작됩니다.

\*\* 본문에서 나타나는 '다음 슬라이드'라는 표현은, '바로 직전에 제시된 슬라이드'를 나타내는 말 표현입니다.

### 1. 왜 심리학사를 공부하여야 하는가?



- 1.1. 역사란 미래에 대한 이해의 열쇠
  -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판단
  - <- 역사에는 반복되는 pattern이 있다.
  - 과거 -> 현재와 미래에 대한 더 좋은 이해
  - 역사공부의 공리적 가치

1-1강 슬라이드 no.12

그러면 일주 일회 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왜 심리학사를 공부해야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교과목을 왜 공부해야하는가 하는 목표가 제시되어야하는데 심리학사를 왜 공부해야하는가 하는 것은 역사란 미래에 대한 이해의 열쇠이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심리학사를 공부해야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판단할 수가 있겠고 역사란 것은 항상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과거를 알아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더 좋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러한 공리적인 가치가 있는 것입

니다.



## ● 1.2. 역사 공부는 교양교육에 기여

- 자유롭고, 지식이 있는 관점 형성
- 편협하고, 지엽적이고, 시골풍의 관점을 극복
-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외적(언어적, 사고적) 영향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
- 지적 영향, 발달적 변화, 관계성을 이해함을 통하여 보다 통합되고,
- 충분한 지식에 기반한 informed 전체적 관점 형성

1-1장 슬라이드 no.13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역사에 대한 공부는 교양 교육에 기여합니다.

역사 공부를 통해서 자유롭고 지식이 있는 그런 관점을 형성 할 수가 있습니다. 편협하고 지엽적이고 시골풍의 그런 좋지 못한 관점을 극복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그러한 외부의 언어적인 사고적인 영향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적 영향이라든지 발달적 변화, 관계성, 그런 것들을 이해함을 통해서 그 현장에 대해서, 또는 지식 영역에 대해서 보다 통합되고 충분한 그런 지식에 기반을 두고서, 보다 더 잘 아는, 여러 가지를 더 잘 아는 조망적인 관점을 형성 할 수 있겠습니다.



### ● 1.3. 역사는 겸손을 가르쳐줌

- 과거나 현재 하나보다는 더 넓은 조망을 지님
- 이미 이전에 있었던 천재, 노력, 창조적 통찰을 접하며
- 우리의 생각이 이미 예전에 있었던 생각의 재발견이라는 것을 깨달음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됨
- 현재의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이상의 지식과 열정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겸손하여짐

#### 1-1장 슬라이드 no.14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역사는 겸손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과거나 현재 그 어느 하나보다는 더 넓은 조망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심리학에서 심리학사를 공부하면서, 이미 이전에 있었던 천재, 노력, 창조적 통찰을 역사공부를 통해서 접하면서 우리의 지금의 생각이 이미 예전에 있던 생각의 재발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주변에서 대체로 보통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역사공부를 통해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이상의 지식과 열정을 지닌 그런 사람들의 지식과 그들의 삶을 마주침으로써 우리가 겸손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1.4. 역사는 건전한 회의주의를 가르쳐 줌

- 역사를 알면 방법론적이나 인격적 우상idols 숭배를 피할 수 있게 하여줌
- 하나의 원리, 방법, 도그마, 만병통치적 사상, 유토피안적 사상, 매혹적인 사상에 의해 우매하게 매료되는 위험을 벗어남
  - => 예: (골상학)
- 유행적 사고,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함

1-1장 슬라이드 no.15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역사는 건전한 회의주의를 가르쳐 준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를 알면, 방법론적이나 인격적, 우상, 아이돌이라는 것, 그런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원리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도그마, 만병통치적 사상, 유토피안적 사상, 매혹적인 사상에 의해 우매하게 매료되는 위험을 벗어나는 것을 역사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교적 신념이라든지 어떤 진보주의 또는 보수주의라든지 그런데 매여져버리는 그런 위험을 역사공부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 라고 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골상학(phrenology)이라는 것을 생각 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는 골상학이라는 것이 상당히 유행했고 그 당시에는 이것을 하나의 과학으로 생각했는데 (아직도 골상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심리학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골상학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한 세대를 사로잡은 하나의 매혹적인 사상이긴 하지만 비과학적인 틀린, 위험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역사를 알게 되면 한 때의 유행적 사고나 유행적 사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 ● 1.5. 역사는 인간의 사고 과정에 영향줌

- 인간의 사고 오류 경향성 : 확인편향 경향
- 역사를 앎으로써, 타인과 나 자신의 사고, 사상의 오류를 이해하게 됨
-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게 함

●

1-1장 슬라이드 no. 16

다음 슬라이드에 의하면 역사는 인간의 사고 과정에 영향을 줍니다. 역사는 인간 삶과 따로 떨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사고의 오류(편향) 경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선거철에 보면 그런 경향성이 많은데, ‘확인 편향(confirmation biases)’ 즉, 자기가 믿는바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는바에 합당한 증거만 보이는 그런 편향적 오류 경향성을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를 앎으로써 타인과 나 자신의 사고, 또는 사상의 오류를 이해하게 되고 보다 건전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슬라이드 no.17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 그림에서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심리학 역사 사료들을 모아 논 박물관의 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 슬라이드는 저작권 관계로 생략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음 사이트의 이미지들을 보세요:

<http://www.chss.montclair.edu/psychology/museum/museum.html>

MUSEUM OF THE HISTORY OF PSYCHOLOGICAL INSTRUMENTATION

이 사이트에는 심리학 형성 초기에 심리학 실험실에서 사용하였던 심리학 실험 기구들의 그림 또는 사진을 여럿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MONTCLAIR STATE UNIVERSITY의 자료입니다.

## *Why History of Psychology ?*



- 1. Continuing existence of unsolved major issues
- 2. without history, distorted, imperfect sophistication
- 3. avoiding the repetition of the past
- 4.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 5. intelligent plan of the future
- 6. understanding how cultural and social forces have molded the attitudes that determine psychology

### 1-1강 슬라이드 no.18

다음 슬라이드에는 지금까지 이야기 한 내용을 영문으로 나타낸 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복습하는 셈 잡고, 왜 심리학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첫 번째는 해결 안 된(unsolved) 중요한 문제들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심리학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 없이는 왜곡되고 불완전한, 그런 이런저런 궤변들이 또는 자세한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 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그냥 반복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게 해주고, 네 번째는 현재를 보다 더 잘 이해 할 수 있겠고, 다섯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지능적인, 지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문화와 사회적인 힘(영향)들이 심리학의 특성을 결정하는 그러한 태도들 (한 시대의 관점들)을 어떻게 형성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이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 7. integration of areas and show of its relationship
- 8. in sheer intellectual curiosity.
  - - learn how a scholar is influenced by his/her predecessors and Zeitgeist, goes about his/her studies and theorizing, and influences his/her followers.
  - - 심리학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파고들어 이론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실제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통해 배움
  - - idea라는 것은 개인이 독창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formulating through the centuries long period.
- 9. !! 학점 따기 위하여. ???

#### 1-1장 슬라이드 no.19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일곱 번째로는 심리학사의 공부는 심리학의 여러 영역들의 관계성 통합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덟 번째로는 그러저러한 것들을 떠나서 순수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심리학사를 공부 할 수 있습니다.

8항의 영문 내용에 의하면, 심리학 역사 상의 한 학자가 어떻게 그의 선대들이, 또는 그가 있던 시대정신에 영향을 받았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의 연구를 하고 이론을 세우고 또 그의 후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심리학사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심리학적 연구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파고들어서 이론화 하고 체계화 하는 것을 실제인물 중심의 예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라는 것은 한 개인이 독창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해서 이전의 사람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조금씩 조금씩 수정해서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심리학사를 공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대학에서 순전히 학점을 따기 위해서 심리학사를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 강의를 수강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 2. 역사학의 문제

- historiography
  - - 사료편찬 (수사)/ 연구방법, 전략
  - - 역사와 역사학에 대한 철학적 탐색
  - - 사료의 특성
  
- 2.1. 역사적 의식의 발전
  - 원시인은 역사적 의식 없었음
  - 점진적으로 시간 조망이 생겨나며 역사의식 발전함
  - 신화와 역사의 구별 / \* 정확성의 문제

1-1장 슬라이드 no.20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심리학사를 논하려면 자연스럽게 역사학의 문제를 논하게 됩니다. 역사학에서는 첫 번째는 historiography, 즉, 사료 편찬, 연구 방법, 전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과학과 달리, 역사학은 과거의 사료에 의해서 해석적으로 철학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 의식의 발전의 측면을 보자면, 원시시대는 역사적 의식이 없었는데, 인류 역사가 지속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류에게 시간 조망이 생겨나면서 역사의식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역사의식의 발전에서 신화와 실제 역사가 있었는데, 신화와 구별된 역사, 정확성을 가진 역사 등을 파악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역사학 탐구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 2.2. What is history?

- 연대기 chronology
- 이야기 narrative
- 역사는 두가지 측면:
  - 경험적 측면
  - 설명적 측면
- History is the interpretive study of the events of the human past.

1-1장 슬라이드 no.2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역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역사는 연대기 일수도 있겠고 과거 이야기 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적 측면에서 역사를 기술 할 수가 있겠고, 설명적 측면에서 역사를 기술 할 수가 있겠는데,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해석적인 탐구,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2.3. 역사는 객관적일 수 있는가?

- 역사자료의 진실성의 문제
- 객관성의 문제
- 객관성이란 실제사건과 이야기의 일치성의 문제가 아니다.
- 모든 편의 관점의 이야기가 다 대표되어야

1-1장 슬라이드 no.22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역사는 객관적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역사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가 있겠고, 객관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객관성이란 실제 사건과 이야기의 일치성에 문제가 그런 문제만은 아니고 모든 측면의 입장의 이야기가 역사 기술에서 다 대표 되어야 객관적일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 2.4. 현재주의와 역사주의

- historicism
  - - 과거를 그 자체로 이해: 과거 사건, 인물
- presentism
  - - 현재라는 맥락 의존적, 해석, 판단에 의한 과거 사실임의 인정
- dabbler- house historians
- the retread
- straight liner
- => 상보적

1-1장 슬라이드 no.23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역사학의 문제를 현재주의와 역사주의를 중심으로 거론하고 있는데, 이는 역사를 접근하는 접근법의 문제입니다. 그 첫 번째는 historicism, 즉 과거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과거의 사건, 인물 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두 번째 presentism 이란 것은 현존하는 맥락에 의존해서 해석하고 판단해서 과거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 2.5. 역사에는 패턴이나 방향이 있는 것인가?

- . Cyclical Hypothesis
- . Linear Progressive Hypothesis
- . Chaos Hypothesis

1-1강 슬라이드 no.24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역사에는 패턴이나 방향이 있는 것 인가에 관한 물음이 제기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역사가 주기적으로 나타난다는, 패턴이 있다 라는 주기적 가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선형적인 직선적으로 진행된다(linear progressive hypothesis)는 그런 가설이 있고, 그런 것 저런 것이 없고 혼동, 혼란(chaos)스러운 것이 역사라는 입장이 즉, 역사는 패턴이 없다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 ● 2.6. What makes History?

- Zeitgeist : 시대정신
- Ortgeist : 장소 정신
- great-person theory: 천재와 위인

1-1강 슬라이드 no.25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무엇이 역사를 만드는가 하면, 시대정신(Zeitgeist)과 장소정신(Ortgeist)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정신과 장소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하면 그런 것인 아니라 그 것을 살려내는 천재와 위인(great person)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 개의 요소가 조합되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2.7. Internal and External history

- - 안에서의 이야기
  - 밖에서의 이야기

1-1장 슬라이드 no.26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역사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내적인 이야기와 외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안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밖에서 제 3자의 입장에서 본 이야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틀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를 보는 접근의 중심적 틀 일곱 개를 나열하여 이야기 했습니다.



### 3. 심리학의 지속적 물음들

- 1. 인간의 본성은 무엇인가?
- 2. 심신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 3. 생득론 대 경험론 (nativism vs. empiricism)
- 4. 자유와 결정론
- 5. 인간 행동과 사고의 합리성
- 6.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 예- 진화론적 관점의 타당성

1-1장 슬라이드 no.27

그 다음에는 역사학 일반을 넘어서 심리학으로 가서 심리학의 역사를 논하려면 당연히 심리학의 역사를 통하여 계속 다루어진 여러 문제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에서 지속적으로 물음으로써 던져지고 오랫동안 심리학의 중심 문제로써 거론되어 왔던 문제들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간 본성은 무엇인가에 관한 물음이었고, 두 번째가 심신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고, 그 이외에도 생득론 대 경험론의 물음,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물음, 인간의 행동과 사고의 합리성 이론의 문제, 동물과 인간과의 관계성의 문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물음들이 옛날 철학에서부터 심리학의 중심물음으로 던져져 왔던 그러한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7. 인간지식의 원천: 자연의 반영? 주관적 구성?
- 8. 인간의 마음은 기계인가?
  - 기계론의 타당성, 적용 방식
  - formalism 의 타당성, 한계
- 9. 객관적 과학방법과 주관적 현상학적 방법
- 10. 심리학의 미래 조망

1-1장 슬라이드 no.28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위에 이어서 심리학의 지속적인 물음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일곱 번째로 인간 지식의 원천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냥 자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 주관적으로 구성한 것인가 하는 그런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 인지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부각되어진 물음인 인간의 마음은 기계인가, 기계론적으로 인간의 심리현상을 설명한다던지 형식주의, 전형주의로 설명하는 것에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심리학에서 객관적 과학 방법을 써야하는가 주관적 현상학적인 방법도 필요한가 하는 그런 물음이 제기가 될 수가 있겠고, 열번째로 심리학이 미래에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심리학의 미래 조망에 물음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 물음들이

심리학이 하나의 학문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여태까지 던져져 온 심리학의 지속적인 물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4. 심리학사를 공부하며 던져야 할 물음들



- 연구자들의 활동과 이론의 발전에 어떤 pattern 이 있는가?
- 이 사람의 공헌이 없었다면 심리학은 어떻게 되었을까?
- 심리학사에 대한 지식이 늘어남으로써 내가 지니고 있던 심리학에 대한, 학문에 대한
- 인간에 대한 조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1-1장 슬라이드 no.29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심리학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던져야 할 물음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정 시점이나 곳에서 한 무리를 이룬 심리학 연구자들의 활동과 이론의 발전에 과연 어떤 패턴이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걸 생각하면서 심리학사를 공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심리학자의 공헌이 없었다면 심리학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반문을 던지면서 공부를 해야 하고, 심리학사에 대한 자신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자기가 지녔던 심리학에 대한, 학문에 대한, 과학에 대한 그리고 인간에 대한 조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계속해서 스스로 반문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장 슬라이드 no.30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그런 반문의 대표적이었던 사람들의 사진, 왼쪽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진이 나오고 오른쪽엔 데카르트의 사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질문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물음을 던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슬라이드 30을 제시 안하고 링크만 제시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 <http://en.wikipedia.org/wiki/Aristotle>

데카르트: [http://en.wikipedia.org/wiki/René\\_Descarte](http://en.wikipedia.org/wiki/René_Descarte)

1-1강 슬라이드 no.3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이미지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슬라이드 31을 제시 안하고 아래에 링크만 제시합니다). 여러 심리학자들 중에서 일부를 여기에 제시했는데 왼쪽에서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찰스 다윈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진화론 적으로 접근한 찰스다윈.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분트입니다. 심리학을 출발시킨 분트고 아래쪽에서 보면 맨 왼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신분석학을 출발시킨 프로이트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미국 심리학을 출범시킨 윌리엄 제임스고 맨 오른쪽에 서있는 사람은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가였던 B. F. Skinner의 사진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물음을 던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물음을 던지는 그런 강의가 되기 바랍니다.

찰스 다윈: [http://en.wikipedia.org/wiki/Charles\\_Darwin](http://en.wikipedia.org/wiki/Charles_Darwin)

빌헬름 분트: [http://en.wikipedia.org/wiki/Wilhelm\\_Wundt](http://en.wikipedia.org/wiki/Wilhelm_Wundt)

지그문트 프로이트: [http://en.wikipedia.org/wiki/Sigmund\\_Freud](http://en.wikipedia.org/wiki/Sigmund_Freud)

윌리엄 제임스: [http://en.wikipedia.org/wiki/William\\_James](http://en.wikipedia.org/wiki/William_James)

B. F. Skinner: [http://en.wikipedia.org/wiki/B.\\_F.\\_Skinner](http://en.wikipedia.org/wiki/B._F._Skinner)

## 5. 심리학사 책이 다루어야 할 내용 목차



- <심리학사> 책이 다루어야 할 내용 목차
  - ← 강의자의 생각

1-1강 슬라이드 no.32

그 다음에는 한 심리학사 책에서 다뤄야할 내용, 목차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것은 강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슬라이드 별로 내용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 1장. 심리학사 공부의 의의와 심리학의 중심 문제

- 1. 왜 심리학사를 공부해야 하는가?
- 2. 역사의 본질과 역사학의 문제점들
- 3. 과학, 심리학, 설명과 이론, 심리학사
- 4. 심리학의 지속적인 물음들
- 5. 심리학사의 역사와 접근들

1-1장 슬라이드 no.33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심리학사의 책 1장에서 ‘심리학사 공부의 의의와 심리학의 중심 문제’, 그러니까 심리학사 책이 먼저 다룰 내용은 왜 심리학사를 공부해야 되고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의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2장. 심리학의 기원

- 1. 古代의 심리 현상에 대한 관점들
- 2. Socrates 이전 시기의 철학자들의 생각
- 3. Socrates, Plato, Aristotle의 심리학
- 4. 후기 희랍과 로마 시대의 심리학적 생각들
- 5. 생리적, 생물적 심리학 접근의 기원

1-1장 슬라이드 no.34

다음 슬라이드를 넘겨보면 책의 2장에서는 심리학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즉 심리학이 어떻게 고대로부터 출발해왔고 회랍시대, 로마시대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가를 계속해서 (서양의 문화사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 3장. 초기 기독교 시대와 중세의 심리학

- 1. 초기 기독교 시대의 심리학적 생각들
- 2. 이슬람 문화의 심리학
- 3. 중세의 심리학적 생각들
- 4. 중세의 생리심리학과 정신병학

1-1장 슬라이드 no.35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3장의 초기 기독교 시대와 중세 심리학, 기독교 시대와 이슬람 문화, 그 다음에 중세에서 심리학적 생각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가 설명되어야 합니다.



- 4장. 과학 혁명과 심리학

- 1. 르네상스와 경험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의 대두
- 2. 자연과학의 성립과 기계론의 발전
- 3. 17세기 Descartes의 심리학
- 4. Descartes에 대한 일차적 반응들
- 5. 16, 17 세기의 생리심리학, 정신병학

1-1장 슬라이드 no.36

그 다음 슬라이드의 책 4장에서는 심리학 밖에서 과학혁명이 르네상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런 과학 혁명의 흐름과 심리학의 연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5장. 경험론, 기계론, 연합주의, 합리론의 발달

- 1. 경험론의 발전 : Berkeley, Hume
- 2. 프랑스 기계론의 성숙과 이에 대한 반응
- 3. 영국 연합주의의 형성과 발전
- 4. 대륙의 합리론과 활동(activity)으로서의 마음
- 5. 영국 연합주의의 체계화
- 6. 18세기의 생리심리학, 정신병학

1-1장 슬라이드 no.37

그 다음 슬라이드의 책 5장에서는 주로 철학자들 중심의 이야기인데, 과학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에 프랑스의 기계론. 영국과 대륙의 연합주의 합리론들이 발달 한 것인데, 그런 철학적 관점들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것들이 심리학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다루어져야 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 6장. 과학적 심리학의 출발

- 1. 19세기초의 자연과학적 배경
- 2. 실험생리학의 성립과 두뇌의 연구
- 3. 실험물리학의 영향
- 4. 정신물리학과 數의 개념의 도입
- 5. 후기 연합주의의 성숙
- 6. Wundt와 실험심리학의 형성
- 7. Wundt의 구성주의 심리학의 전파와 실험심리학의 확립

1-1강 슬라이드 no.38

그 다음 슬라이드의 책 6장에서 보면 과학적 심리학의 출발이 다루어집니다. 19세기 초에 어떻게 해서 과학이 유럽에 특히 독일에서 강하게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을 받아서 분트가 19세기 말에 심리학을 [실험 심리학]으로서 독립시켰는가를 다뤄야 되겠습니다.



- 7장. 과학적 심리학 체계의 가다듬음

- 1. W. James와 초기 미국심리학자들
- 2. 진화론과 초기 심리학
- 3. 오스트리아 학파와 주제, 방법론의 세련화
- 4. 초기 생리심리학과 두뇌의 연구

1-1장 슬라이드 no.39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면 책의 7장은 과학적 심리학 체계의 가다듬음, 즉 분트가 출발시킨 심리학이 미국과 독일 등에서 어떻게 발달했는가가 다루어져야겠습니다.



- 8장. 고전적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두

- 1. 20세기 이전의 동물심리 연구
- 2. Pavlov와 소련 심리학
- 3. Watson과 행동주의 심리학
- 4. 동물 학습 연구와 행동주의 이론의 발전: Thorndike까지

1-1장 슬라이드 no.40

그 다음 슬라이드 8장에서는 이제 20세기 심리학의 초기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행동주의 심리학이 어떻게 발전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심리학의 발전 역사가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9장. 형태주의 심리학(Gestalt Psychology)

- 1. 형태주의 심리학의 근원
- 2. 형태주의 심리학의 대두
- 3. 형태주의 심리학의 전파
- 4. 형태주의 심리학의 후예와 그 한계
- 

1-1장 슬라이드 no.41

그 다음 슬라이드의 책 9장에서 보면 그런 행동주의 심리학에 반발해서 나왔던 형태주의 심리학이 무엇이며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리고 그 것이 후의 심리학에 어떻게 남아있는가, 그리고 그 형태심리학 이론의 한계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 10장. 정신분석학과 무의식

- 1. 정신병 개념과 치료법의 초기 역사: 개관
- 2. 무의식 개념의 발견 역사
- 3. Freud 이론의 대두
- 4. Freud 이론의 발전 및 수정
- 5. Freud이론에 대한 대안적 초기 접근

1-1장 슬라이드 no.42

다음 슬라이드의 책 10장에서 보면 정신 분석학과 무의식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형성 되었고 발전됐는가를 다뤄야 될 것입니다.



- 11장. 신 행동주의(Neo-behaviorism)

- 1. C. Hull과 가설연역 체계
- 2. 신-Hull주의 이론
- 3. Tolman과 목적론
- 4. Skinner의 행동주의
- 5. 행동주의 이론의 후예들
- 6. 행동주의와 심리치료의 접합



1-1강 슬라이드 no.43

다음의 책 11장에서는 행동주의가 신행동주의로 어떻게 틀이 바뀌어지고 보다 더 세련화 됐는가가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 12장. 과학적 심리학 체계의 분화 및 성숙

- 1. Lewin과 場이론의 발전
- 2. 사회심리학의 형성과 발전
- 3. 발달심리학의 형성과 발전
- 4. 성격심리학과 개인심리학의 형성
- 5. 인본주의 심리학의 대두
- 6. 정신병학 이론 및 치료기술 기법의 발전
- 7. 생리심리학의 발전
- 8. 응용심리학의 발전
- 9. 실험심리학의 세분화 및 체계화
- 10. 아시아의 심리학적 연구들

1-1장 슬라이드 no.44

다음에 책 12장에서는 20세기 초반 중반에서의 심리학의 발달이 여러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즉 과학적 심리학 체계의 변화 및 성숙이 여러 분야의 심리학들의 발달을 중심으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 13장. 패러다임의 변혁

- 1. 과학, 과학철학, 패러다임
- 2. 심리학 패러다임의 변화: 인지혁명
- 3. 심리학 내외의 영향: 철학, 컴퓨터과학, 언어학, 신경과학, 인류학
- 4. 인지심리학의 발전과 심리학 내외에의 영향

1-1장 슬라이드 no.45

책의 13장에서는 패러다임의 변혁, 그러니까 20세기 말에서 21세기에 걸쳐 가면서 심리학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데 그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다루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14장. 20세기 후반의 변화

- 1. 인지과학의 형성: 고전적 인지주의의 발전
- 2. 신연결주의의 대두와 의의
- 3. 신경과학의 확산과 신경/생물인지심리학의 형성
- 4. 과학철학의 새 움직임
- 5. 유럽사조의 도입: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적 구성주의
- 6. 새로운 변화(통합과 분화)에의 시도
- 7. '심리적 과학들(Psychological Studies)로의 변화?



## 1-1강 슬라이드 no.46

그 다음에 책의 14장에서는 20세기 후반의 심리학의 변화 내용이 다루어져야 하고,



- 15장. 회고와 전망

- 1. 심리학의 중심 물음들: 어디까지 와 있는가?
- 2. 심리학의 틀, 개념 방법론의 재구성:
  - 미래의 방향은?
- 3. 남는 물음들
- 4. 심리학사 연구의 현재와 미래
- 5. 결언

## 1-1강 슬라이드 no.47

그 다음 책의 15장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심리학의 역사적 흐름들을 회고해보고 그랬을 때 앞으로 심리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전망해보는 그런 식으로 심리학 학사의 책 내용이 써져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6. 심리학사(2007) 강의 스케줄

- 1주: 서론: 왜 심리학사인가?
  - 강의 안내:
  - 왜 심리학사인가?
  - 과학/학문/심리학/ 이론체계
  - 교재 1장, 별도 자료
- 2주: 고대 희랍, 로마, 중세의 심리학적 물음
  - 별도 자료 파일
- 3주: 르네상스에서 18세기까지의 심리학
  - 교재 2장
- 4주: 19세기 과학과 심리학의 태동
  - 별도자료
- 5주: Wundt와 과학적 심리학의 독립
  - 교재 4장

## 1-1강 슬라이드 no.48

그렇다면 그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이번기의 [심리학사]의 강의는 어떠한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 되는가 하는 것이 슬라이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 주에는 왜 심리학자인가? 심리학사를 연구해서 뭐가 도움이 되는가? 이론 체계란 것이 무엇인가? 과학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전반적인 틀을 다루고 약간의 추상적인 얘기가 첨가되겠습니다. 2주차부터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서 고대 회랍과 로마 중세의 심리학적 발전 내용을 다루고 3주차에서는 르네상스에서 18세기까지의 심리학을 다루고 4주차에서는 19세기 과학과 심리학의 태동, 그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5주차에서는 분트와 과학적 심리학의 독립을 다룹니다.



- 6주: Darwin과 진화론
  - 교재 5장
- 7주: 구성주의와 미국심리학의 출발
  - 교재 6, 7장
- 8주: 중간시험
- 9주: 행동주의 심리학
  - 교재 10장
- 10주: 형태주의 심리학
  - 교재 9장
- 11주: 신행동주의 심리학
  - 교재 11장

1-1장 슬라이드 no.49

다음으로 6주차에서는 다윈과 진화론을 다루고 7주차에서는 구성주의와 미국 심리학의 출발을 다루고 8주차에서는 한 주를 쉬고, 9주차에서는 행동주의 심리학, 10주차에서는 형태주의 심리학, 11주차에서는 신행동주의 심리학을 다룹니다.



- 12주: 정신분석학과 임상심리학
  - 교재 12장
- 13주: 인본주의 심리학과 제 3 세력
  - 부교재 12장
- 14주: 인지주의 심리학
  - 교재 13장
- 15주: 심리학의 응용과 미래의 전망
  - 교재 8, 14장
- 16주: 종합적 논의

1-1강 슬라이드 no.50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12주차에서는 정신분석학과 임상심리학을 13주차에서는 인본주의 심리학과 제 3세력의 심리학을 다루고 14주차에서는 인지주의 심리학, 15주차에서는 심리학의 응용과 미래의 전망을 다루고 16주에서는 종합적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7. 부록



- 
- <부록1.>
  - 심리학도의 탐구 자세 :
    - → 별도 파일
- <부록2.>
  - 연대표; 연대별 주요 인물과 생각(관점)
    - → 별도 배포 복사물

1-1강 슬라이드 no.51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록들이 그 다음 슬라이드부터 제시되어있는데 이것은 각자 살펴보도록 하시고 짚막짚막 하게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에는 심리학도들이 어떤 탐구 자세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 들어가겠는데 이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http://cogpsy.skku.ac.kr/psychologist.html>) 별도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부록2는 역사적 연대표, 연대별 주요 인물과 생각이 내용에 제시되는 그런 파일인데 이것은 강의 끝 즈음에 별도 파일로 올리겠습니다.

### <부록3>: 심리학사 관련 참고문헌



- HJ 슈퇴리히 (저) 임석진 (역) (1978), 세계철학사. 분도출판사.
- HG 웰즈. 지명관 역. 세계문화사 소사 AJ 토인비. 현대문명비판. 을유문화사. (1964).
- 플라톤 지음, 최명관 옮김. (1981). 플라톤의 대화. 종로서적. 312쪽
- 장영란 지음 (1977). 아리스토텔레스의 인식론. 서광사. 399 쪽. -1. 영혼이란무엇인가, 2. 감각의 특징, 3. 감각의 종류, 4. 감각과 의식, 5. 판타시아. 6. 기억과 종합의 원리, 7. 지선의 대상, 8. 지성의 작용, 9. 지성의 양상.
- 에티엔느 질송 지음, 김기찬 옮김 (1997). 중세 철학사. 현대지성사. Etienne Gilson. History of Christian Philosophy in the Middle Ages. Random House. 1955
- Popkin, Richard H. (Ed.) (1966). The philisophy of the 16th and 17th Centuries. Free Press. (pp. 365)

1-1강 슬라이드 no.52

그 다음 슬라이드의 보록 3에서 보시면 심리학사 관련 참고문헌이 나오는데 이것은 각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Hyman, Artur & Walsh, James, J. (Eds.) (1973). Philosophy in the Middle Ages: The Christian, Islamic, and Jewish traditions. Indianapolis: Hackett Publishing Co. (pp. 747)
- Frank, Daniel H., & Leaman, O. (Eds.) (1997). History of Jewish philosophy. London: Routledge. (pp. 934)
- 존 로지 (지음), 정병훈, 최종덕 (옮김) (1999). 과학 철학의 역사. 동연. (원저: John Losee (1993). A historical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science. Oxford U. Press. (394쪽)
- Israel, Jonathan I. (2001). Radical enlightenment: Philosophy and the making of modernity 1650-1750.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pp. 810)
- Garrett, Don (Ed.) (1996). The Cambridge companion to Spinoz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65)
- Wolterstroff, N. (2001). Thomas Reid and the story of epistem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65)
- 박정호, 양운덕, 이봉재, 조광제 (역음) (1996). 현대철학의 흐름. 동녘. (556쪽)
- 장 류트 샤류모 (저), 방근 (역)(1982). 현대 프랑스 사상. 문예출판사. (231 쪽)

1-1강 슬라이드 no.53

그 다음 슬라이드 53도 참고 문헌이고



- 길희성 (1984). 인도철학사. 민음사. (319쪽)
- F. 코플스톤 (지음), 김성호 (옮김). 합리론: 데카르트에서 라이프 니츠까지. 서광사. (601쪽) - Frederick Copleston (1961). A history of philosophy (Vol. 4): Descartes to Leibniz. The Newman Press. (601쪽)
- 존 레흐트 (지음), 곽동훈, 김시무 (옮김). (1996). 한권으로 보는 현대사상가 50. 현실문화연구. (472쪽)
- 메를로-퐁티 (지음), 류의근 (옮김) (2002). 현상학. 문학과 지성사. (713쪽). M. Merleau-Ponty.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713쪽)
- 앙리 베르크손 (지음), 최화 (옮김) (2001).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아카넷 (400쪽) 대우고전총서 001. Essai sur les donnees immediates de la conscience.
- 윌리엄 제임스 (지음), 정양은 (옮김) (2005). 심리학의 원리1, 2, 3. William James.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 Bringmann, Wolfgang G., Lueck, Helmut E., Miller, Rudlof, & Earky, Chares E. (Eds.) (1997). A pictorial history of psychology. Chicago: Quintessence Publishing Co.. (pp. 636)
- Calvin, William H. (Apr. 2004). A Brief History of the Mind: From Apes to Intellect and Beyond. OUP.

1-1장 슬라이드 no.54

그 다음 슬라이드 54도 참고 문헌이고



- 로렌 슬레이터 (지음), 조중렬 (옮김). (2006).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 세상을 뒤바꾼 위대한 심리실험 10장면. 예코의서재
- 로저 R.호크 (지음), 유연옥 (옮김) (2001). 심리학을 변화시킨 40가지 연구. 학지사.
- 스타노비치 지음, 신현정 옮김 (2003). 심리학의 오해. 해안.
- 더글라스 무크 (지음), 진성록 (옮김). (2007). 당신의 고정관념을 깨뜨릴 심리실험 45가지. 부록북스.
- 솔로몬왕의 반지: 동물과의 대화(C. Lorenz, 문장)
- 털없는 원숭이: 동물학적 인간론(D. Morris, 정신세계사)
-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B. F. Skinner, 탐구당)
- 사람과 컴퓨터(이인식, 까치)
- 컴퓨터와 마음(Johnson-Laird, 민음사)
- 

1-1장 슬라이드 no.55

그 다음 슬라이드 55도 참고 문헌입니다.

## <부록 4>: 심리학사 관련 주요 자료 사이트



- 심리학사 및 심리학철학 자료 사이트:  
<http://www.psych.yorku.ca/orgs/resource.htm>
- 주요 개별 심리학자 관련 사이트 목록:  
<http://www.psych.yorku.ca/orgs/resource/individ.htm>
- 미국심리학사 문헌 보관소 (Akron 대학):  
<http://www3.uakron.edu/ahap/>
- 심리학의 고전: Classics in Psychology.:  
<http://psychclassics.yorku.ca/>
- 심리학사 박물관 (콜롬비아대):
  - [http://www.barnard.columbia.edu/psych/museum/b\\_museum.html](http://www.barnard.columbia.edu/psych/museum/b_museum.html)

### 1-1장 슬라이드 no.56

그 다음 슬라이드 56에서 보시면, 부록4. 심리학사 관련 주요 사이트 링크가 있는데 하나 하나 살펴보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심리학사 박물관, 미국 심리학사 문헌 보관소 사이트 링크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1-1장 슬라이드 no.57

그 다음 슬라이드 57에서는 그 옛날에 Wundt 교수가 심리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과 심리학 실험실에서 모여 있는 기념비적 사진입니다. 책상위의 실험기구는 이들이 사용한 것 중에서 아주 단순한 기구 예입니다. 분트 등은 이보다 더 복잡한 심리학 실험기구들을 여럿 제작하여 초기의 심리학 실험에서 사용하였습니다.

- 저작권 문제 때문에 슬라이드는 생략합니다. 사이트 링크의 사진을 참고하세요.

<http://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a/a3/Wundt-research-group.jpg/350px-Wundt-research-group.jpg>



- 미국심리학회 26분과: 심리학사협회:  
<http://shp.yorku.ca/>
- 미국심리학회 24분과 이론심리학 및 심리학철학협회  
사이트: <http://soe.indstate.edu/div24/>
- 심리학사 도서관자료 가이드:  
<http://pages.slu.edu/faculty/josephme/resguides/psyhist.html>
- 심리학사에서 오늘(월/일)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http://www.cwu.edu/~warren/today.html>

1-1장 슬라이드 no.58

그 다음 슬라이드 58에서도 심리학사 관련 사이트 링크 주소가 있고,



- 심리학사에서 유럽의 영향(흔적): <http://mysite.verizon.net/donrae19/>
- 심리학이 첫출발한 라이프치히대학 심리학과 역사 (독일어판):
  - <http://www.uni-leipzig.de/~psycho/wundt.html>
- 미국 정신병원의 역사: <http://www.historicasylums.com/>
- 인지과학의 역사이전 시대:  
<http://www.rc.umd.edu/cstahmer/cogsci/>
- 심리학의 실험 및 연구 기기 박물관:  
<http://chss.montclair.edu/psychology/museum/museum.html>
- 캐나다에서 사용된 심리학 실험연구기기 박물관:
  - <http://www.psych.utoronto.ca/museum/list2.htm>

1-1장 슬라이드 no.59

그 다음 슬라이드 59도 심리학사 주제 관련 사이트 링크 주소이고요,

1-1강 슬라이드 no.60

그 다음 슬라이드 60에서는 순간 노출기라는 옛날 실험 기구를 보여주고 있고,



- 심리학의 주요 주제별 관련 인물소개 및 도서 소개 링크 사이트:
  - <http://faculty.colostate-pueblo.edu/paul.kulkosky/401.htm>
- 심리학사 강의 수강자가 기말보고서 작성하는 법:
  - <http://grove.ufl.edu/~dewsbury/termpapers.htm>
- 심리학의 사상(아이디어) 및 사건 연대표:
  - [http://www.geocities.com/Athens/Delphi/6061/en\\_linha.htm#-600](http://www.geocities.com/Athens/Delphi/6061/en_linha.htm#-600)
- 골상학의 역사; <http://pages.britishlibrary.net/phrenology/>
- 심리학사 강의자용 자료 사이트:  
<http://www.apa.org/archives/refthp.html>
- 심리학사 강의 reading list:
  - <http://www.ruf.rice.edu/~sch/history%20course/Reading.htm>

1-1강 슬라이드 no.61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61도 심리학사 관련 사이트 주소입니다.





- <기타 심리학사 자료 사이트들>
- [http://www.vanguard.edu/faculty/ddegelman/amoebaweb/index.aspx?doc\\_id=863](http://www.vanguard.edu/faculty/ddegelman/amoebaweb/index.aspx?doc_id=863) : Amoeba (인물중심)
- <http://www.tulsa.oklahoma.net/~inichols/hist.html>
  - 일반; 오크라호마대
- <http://www.sruweb.com/~walsh/psych-history.html>
  - 일반: Salve Regina University
- <http://www.usca.edu/psychology/history/histor~1.html>
  - 일반: U South Carolina
- <http://www.ship.edu/~cgboeree/historyofpsych.html>
  - 일반: Sippensburg 대 (시대 별)
- <http://elvers.stjoe.udayton.edu/history/welcome.htm>
  - 일반: Dayton 대 (생일/이름/주제 별..)

1-1장 슬라이드 no.62

그 다음 슬라이드 62에서는 기타 심리학사 자료 사이트들을 보여주고 있고,



### <부록5>. 두 번역본 심리학사 책의 비교

- 1. 참고서1.: Howard H. Kendler (1987). HISTORICAL FOUNDATIONS OF MODERN PSYCHOLOGY.
- 2. 교재: C. James Goodwin (1999). A history of modern psychology. NY: Wiley.

1. Kendler 책의 장 (심리학체계 중심)	2. Goodwin 책의 장 (일반 역사 비중)
1장. 역사적 관점에서의 심리학	1장. 심리학 역사의 소개
2장. 분트심리학	2장. 철학적 배경 -데칼트 영국경험론,연합주의
	3장. 신경생리학
	-감각생리학, 뇌 기능 국재화, 19세기초
	4장. Wundt와 독일심리학
	-Wundt, Ebbinghaus, Kuelpe
3. 구성주의	7장. 구성주의, 기능주의 -Titchener
4. 윌리엄 제임스	6장. 미국심리학의 개척자 -W. James, Hall, Calkins
5. 기능주의	7장. 기능주의 -시카고학파
* 진화론은: 5, 6장에서 언급	5장. Darwin의 진화론
* 심리검사	8장. 신 심리학의 응용에서 -심리검사, 응용심리

1-1장 슬라이드 no.63

그 다음 슬라이드 63을 보면 부록 5라고 해서 두 번역본 심리학사 책의 비교를 해보이고

있습니다. 캔들러의 책의 장의 내용과 굿윈의 책의 장의 내용을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같은 심리학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데 초점을 두고 자세하게 또는 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 6장. 행동주의
- 7장. 형태주의 심리학
- 8장. 정신분석학
- 9장. 신행동주의 1: Tolman & Hull
- 10장. 신행동주의: Skinner & Hebb
- 11장. 인지심리학
- 12장. 인본주의 심리학
- 13장. 심리학의 과거와 미래 조망
- 10장. 행동주의 기원  
- Pavlov, Watson
- 9장. 형태주의 심리학  
- Wertheimer, Koffka, Koehler, Lewin
- 12장. 정신분석과 임상심리학  
- 정신병학, Freud &, 미국임상심리
- 11장. 행동주의의 전개  
- Tolman, Hull,
- 11장. 행동주의의 전개 - Skinner
- 14장. 심리학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  
중에서 -Hebb (524-526) & 연결주의 다름
- 13장. 인지심리학
- 12장. 임상심리학의 부분에서 언급
- 14장. 심리학의 과거와 현재의 연결

1-1장 슬라이드 no.64

그 다음 슬라이드 64에도 두 책의 비교 내용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부록에서 심리학사 관련 여러 사이트 링크를 제시하고 두 번역본 교재들을 비교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별도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1주차 1회차 강의, 즉 심리학사 강의의 전체적 안내와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을 설명한 1주차 1회차 강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퀴즈와 1회차 학습정리는 각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